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In his book,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David Wells argues that the church is weak because it has “exchanged the sensibilities of modern culture for the truth of Christ”. If Wells is right, then the church is no longer the church. For in the process of explaining his purpose for writing to Timothy, the apostle Paul defines the church by its relationship to the truth: “Although I hope to come to you soon, I am writing you these instructions so that, if I am delayed, you will know how people ought to conduct themselves in God’s househol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 (vv.14-15).

데이빗 웰스는 그의 책 “신학 실종, 혹은, 복음주의에는 무엇이든 가능한가?”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현대 문화의 감수성과 교환되었기”때문에 교회가 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말이 맞다면 교회는 더이상 교회가 아닌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글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교회를 진리와의 관련성에 의해 정의내렸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하려 함이니 이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14-15 절)

Paul was planning to visit Ephesus before long. But in case he was delayed, he wanted Timothy to know how to carry out his pastoral duties in the meantime. Since 1Timothy was a public letter, it seems that he also wanted to remind the Ephesians to support their pastor by behaving themselves in the household of God. Looking back at what we have already seen in 1Timothy, the kind of conduct the apostle has in mind includes proper doctrine (1:1-20), proper gender relations (2:1-15) and proper spiritual leadership (3:1-7).

바울은 오래전부터 에베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디모데에게 그동안 어떻게 목회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공개적인 서신이었던 것을 볼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식구로서 행실을 잘 함으로써 그들이 목회자를 도울수 있도록 상기시키기를 원했던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을 돌아볼때, 사도들이 염두에 두어야할 행동방식이란, 적절한 교리 (1:1-20), 적절한 성별 역할 (2:1-15), 그리고 적절한 영적 지도 (3:1-7)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식구

Paul is addressing proper conduct in “God’s household”. The members of the true church are sons and daughters of God the Father –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Each and every one of us has a place of fellowship and service in God’s household. But the church is not simply God’s household – it is also his house. It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church is the house that God built. Remember Paul’s words to the Ephesian church in an earlier letter,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Ephesians 2:22). This must have been a special encouragement to the Christians in Ephesus. The temple of Diana in Ephesus wa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But however impressive it seemed from the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outside, it was utterly devoid of life. The goddess in the temple was nothing more than a dead idol. By contrast, Paul wanted to remind the Ephesians that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the real temple. The living God lives among his people, by His Spirit, especially in their public worship. Whenever visitors enter a church where the Spirit of God is present with the people of God in worship, they say, "Surely God is in this place!"

바울은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적절한 행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멤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예수안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각자와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봉사하고 교제할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전, 다이에나는 고대의 일곱가지 불가사의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에서 보면 감동적인것 같지만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전의 여신은 죽은 우상과 전혀 다를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진정한 성전임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특히 그들의 공개적 예배안에 그의 백성들 사이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교회에 방문자가 들어올때 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The church is not only a home for God and for his people – it is also a home for God’s truth. Paul continues his temple imagery with a third definition of the church: “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 Roman Catholic theologians often use this verse to argue against the Reformation doctrine of sola Scriptura. They say, “See the church is the foundation for the truth. Therefore, Scripture (the Bible) is not the only rule of faith and practice. We must obey church tradition as well as the Bible.” One problem with the Catholic view of this verse is that it forgets Ephesians 2:19-20, where Paul says: “.....you are.....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 stone”. The ultimate bedrock foundation of the church is the Word of God spoken by the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written by the apostles of the New Testament, and made incarnate by God’s own Son. How can the church be the foundation of the truth if the truth i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만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전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교회의 세번째 정의를 계속 내립니다: "진리의 기둥이자 터".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종종 개혁신앙의 "오직 성경" 이론에 대항하여 반대할때 이 문구를 이용하곤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진리의 터 인것을 보라. 그러므로 성경만이 믿음과 실천의 규율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아닌 교회의 전통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관한 카톨릭의 관점의 한가지 문제점은, 에베소서 2:19-20 에서 "너희는...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교회가 저변에 놓여있는 터란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 말하여지고,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 쓰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구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진리가 교회의 기초라면 어떻게 교회가 진리의 기초가 될수 있습니까?

The word translated “foundation” in the NIV, actually is better translated “buttress”. A buttress is not a building’s foundation, but part of its supporting structure. To be specific, a buttress helps to stabilize the walls and pillars of a large building. The architectural function of pillars is well known – they hold up the roof. So to say that the church is the pillar and buttress of the truth is to say that it lifts up the truth for all the world to see. Over against the Roman Catholic view that the church determines the truth, the Bible teaches that the church displays the truth. It may be significant that the Greek omits the definite article – verse 15 should read “a pillar” rather than “the pillar”. Every Christian congregation is one pillar of truth. Every church is a pillar that helps to bolster the truth of Jesus Christ by holding it up for the world. But for the truth to be fully displayed, every church, every pillar must play its part.

뉴인터내셔널 버전의 “터”라는 단어는 사실 “지지물”로 번역된 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지지물이란 어떤 건물의 기초가 아니라 구조를 지탱하는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지대는 큰 건물의 벽들과 기둥들을 안정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기둥이 건축에서 하는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요 - 그들은 지붕을 받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자 지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볼수 있도록 진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좌우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에 대항하여, 성경은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정관사를 빼버린 것은 어찌면 의미심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15 절은 “a pillar”가 아니라 “the pillar”로 읽혀져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집회는 진리의 한 기둥입니다. 모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진리를 높이 들어올림으로 그 진리를 고무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지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모든 기둥이 그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The Mystery of Godliness 하나님다움의 신비함

If the church is a pillar and buttress of the truth, it needs to know what the truth is, and the truth is a great mystery: “Beyond all question,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When the Bible uses the word “mystery”, it is not referring to something that is unsolved, but to something long hidden that has now been revealed. In the Bible, a mystery is the secret plan of redemption which is no longer secret because God has revealed it. The mysteries concerning Jesus Christ are profound. The greatness of the mysteries of the gospel is demonstrable and undeniable. There is no doubt about it.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The mysteries of the gospel are great by common consent. This is the truth that the church is called to uphold in the world: the saving mystery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만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자 지지대라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진리는 엄청나게 신비롭습니다: “모든 질문을 뛰어넘어, 하나님다움의 신비로움은 굉장하다”. 성경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껏 드러내지 않았던 오래도록 숨겨진 뭔가를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신비란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냄으로 더이상 비밀이 아닌 어떤이들만이 아는 구원의 특별한 계획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비들은 매우 심오합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신비함들은 증명가능한 것이고 부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의 신비들은 모두의 인정하에 위대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가운데 우뚝서도록 부름받은 진리: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구원의 신비입니다.

The mystery of Jesus Christ is described in 6 lines that sound like part of an early creed, confession or catechism. These lines deserve careful study, especially since scholars disagree about how they should be divided. One suggestion is to separate the creed, or perhaps hymn (since the lines are rhythmic and their first words all rhyme), into 2 stanzas of 3 lines each. The first stanza refers to the earthly ministry of Jesus Christ (he “appeared”, was “vindicated” and “seen”), while the second stanza refers to the work of Jesus Christ after his ascension (he was “preached”, “believed on” and “taken up”). Other scholars point out that the lines come in pairs or couplets. However, since it is not certain how to sub-divide this verse of Scripture, perhaps it is better not to try. This creed or hymn is a short history of Jesus Christ. It contains the gospel truth about his work of salvation in outline form. Each line describes a different period or event in his life and ministry. Therefore, it seems best to understand these statements in chronological order.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함은 초기 사도신경, 고해서 혹은 교리문답의 일부분처럼 들리는 여섯줄에 걸쳐 디모데전서 3:16 절에 서술되어있습니다. 이 16 절가지고 학자들이 어떻게 특히 그것을 나누냐를 가지고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학습이 요구될만 하지만, 한가지 제안은 그 신경을, 혹은 그 찬송을 (그 행들은 리듬이 있고 첫째 단어는 동일한 음이기 때문에), 2 연 3 행으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연은 예수님의 승천이후의 사역을 말하는 반면 (그는 “전파되시고” “믿은바 되시고” “올리우셨음이니라”), 첫째 연은 예수님의 이땅위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는 “나타나셨고”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보여지셨다”). 다른 학자들은 이 행들이 서로 짝을 맞춰 쓰였거나 아니면 두개의 대조를 이루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구절들이 어떻게 다시 분리되었는지는 확실치 않기에 아마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이 고백서 혹은 찬송은 예수님의 짧은 역사책입니다. 그것은 중요 특징을 잡아 요약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들은 그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사건과 여러가지 시간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시간적 순서대로 그 행들이 이해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a) “He appeared in a body”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바 되시고”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God the Son had lived in all the splendor of his deity from eternity past. Then he became a man, identical to us in his physical body. This is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God the Son became the God-man. By taking upon himself human flesh and blood, he became one person with two natures: a divine nature and a human nature. Since God the Son appeared as a man, everything he did on this earth he did in a real human body. The events of the passion of Jesus Christ were physical events. As Peter says in his first letter, "Christ suffered in his body" (1Peter 4:1). Christ even died in the flesh. It was a real body that was nailed with real nails to a cross of real wood. It was a real body that was punished for sin. Then it was a real body – a corpse – that was taken down from the cross, wrapped in linen, and laid in a tomb. God the Son did not just appear in a body – the body in which he appeared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하나님 아들은 영원한 과거에서 부터 그의 고결함으로 모든 찬란함을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의 육신화된 신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과 피를 받으며, 그는 두 성질을 지닌 하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자는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이땅에서 행한 모든 것은 정말 인간의 몸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의 사건들은 육체적 사건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번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베전 4:1). 예수님은 육신으로 심지어 죽으신 것입니다. 진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진짜 못으로 박히신 진짜 몸이었습니다. 죄의 댓가를 받은 것은 진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져 천에 쌓여지고 무덤에 놓여진 – 송장도 진짜 몸이었습니다. 성자는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b) "Vindicated by the Spirit"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God the Son did not remain in the grave, however, he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In other words, the Holy Spirit confirmed and proved that Jesus Christ is God's own Son and the Saviour of the world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The resurrection was such an important event that it required the work of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Trinity. God the Father raised God the Son from the dead by the power of God the Holy Spirit: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1Peter 3:18). The Holy Spirit was the one who gave life and glory to the dead body of Jesus Christ.

성자는 그러나 무덤에 계속 남아있지 않았고 "성령으로 오명을 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죽음에서 부활하여 세상의 구세주로 오심을 성령님이 증명하셨고 확실케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삼위일체 각각의 모든 멤버들의 역할이 요구되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령의 힘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다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전 3:18).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은 육신에게 생명과 영광을 가져다준 분이십니다.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When the Holy Spirit raised Jesus from the dead, he confirmed that everything Jesus ever said or did was true. Although Jesus Christ was rejected by the world, he was approved by the Spirit. The word for “vindication” is also the word for “justification”. In this case, it means that by his resurrection Jesus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and the Saviour of the world. The resurrection was the Holy Spirit’s verification that Jesus is the Christ.

성령님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건지셨을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과 행하셨던 일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케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는 거절당했지만, 성령님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오명을 밝힘”이란 단어는 “의롭게 됨”이라는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임이 선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라는 것에 대한 성령님의 입증이었습니다.

(c) “Seen by angels” “천사들에 의해 보여지고”

After Jesus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he was “seen by angels”. The word “angels” usually means what it says. It refers 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of the unseen world, especially those glorious, supernatural creatures who worship God in heaven and serve him on earth – the angels. We know from the gospels that some of the angels were witnesses of the incarnate Christ. As one commentator has put it: “These ministering spirits sang at his birth, in the hour of his temptation, guarded his sepulcher, attested his ascension, and expected his return”. The reason for mentioning the angels here is to show that the mystery of godliness is known in heaven as well as on earth. Although the angels themselves are not saved by grace, they glorify God for our salvation, as they are doing this very moment.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오명을 풀리고” 난후, “천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천사들”이란 말은 거의 말그대로를 뜻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능과 지배를 뜻하는데, 특히 천사들-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에서 그를 위해 일하는 영광스럽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 몇몇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복음서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역을 담당 한 영들은 예수님의 탄생때에는 노래하였고, 그가 유혹받을 시에 도움을 주었고, 그의 돌무덤을 지켰고, 그의 승천을 증언했고, 그의 재림을 예언했다.” 여기에서 천사라는 말이 언급된 이유는 하나님다움의 신비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알려져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There is, however, another possible meaning for this line of Paul’s creed of hymn. The word “angel” simply means “messenger”. Hence it is an appropriate word for God’s heavenly messengers – but it can also refer to his earthly messengers, meaning the apostles. The apostles were eyewitnesses of the life and work of Jesus, and especially of his resurrection. In fact, the Greek word Paul uses here for “seeing” is the same word he uses when he tells the Corinthians that the risen Christ “appeared” to Peter and the rest of the apostles, including Paul himself (1Corinthians 15:5-7). When the first Christians confessed that Jesus was seen by messengers, therefore, they may have been referring to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the apostles. Although dismissed by many commentators, this possibility is in keeping with the logic of the hymn. The next thing Jesus did after he appeared in a body and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was to show himself to Peter, John, and the rest of the disciples, including Thomas.

그러나 바울의 찬송적 고백서중 이 줄에 관한 또다른 가능성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천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메신저(주의 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늘의 메신저들에게 적절한 단어입니다 – 그런데 그것은 또한 이 땅의 메신저로서의 사도들로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보여지다”라는 그리스 단어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것” (고린도전서 15:5-7)을 이야기 할때도 사용했던 같은 단어입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이 주의 사자 (메신저)들에 의해 예수님이 보여지셨다고 고백했을때, 그 메신저들이란 사도들을 말했을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여전히 여기서 이 찬송의 논리상으로 볼때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하신 일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보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The post resurrection appearances of Jesus were essential to the plan of salvation. In order for the apostles to know that Jesus was the Christ, they had to see his glorious resurrection body. Otherwise, the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testify that he had won the victory over the grave. Without their eyewitness testimony, we ourselves would never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would not be able to stand as a pillar and buttress to the gospel truth. The same cannot be said of the angels and their testimony. They glorified God when they saw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But our faith rests upon Jesus' presentation of himself to the apostles, not the angels.

부활 후의 예수님의 출현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사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무덤에서 승리한 사실을 증거할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간증 없이는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수 없었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기둥과 지지대로서 서있을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한것과 사도들의 간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직접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d) “Preached among the nations” “만국에 전파되시고”

There is another reason for thinking that “messengers” may refer to the apostles. Notice what comes next: Jesus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meaning all the Gentiles peoples of the world. This clearly refers to the apostolic preaching of the gospel. Having seen the risen Christ, the apostles preached the risen Christ. The apostles received the commission to do this from Jesus himself. Before he ascended into heaven, Jesus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Matthew 28:18-20a). The apostles began to fulfil this commission at Pentecost. But Pentecost was only the beginning of the world wide work of the gospel. Jesus Christ was preached, not only in Jerusalem, but in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Jesus is preached among the nations to this very day. This is part of the great mystery of godliness. What the church is doing at this moment in history is essential to God’s plan for the redemption of the world. The gospel is going to the nations as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is proclaimed to every tribe, people and language.

그 “메신저들”이 사도를 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온 일에 주목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뜻하는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복음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본 후에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8-2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복음의 전 세계적 사역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8)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까지 온 민족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되심의 위대한 신비의 일부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 온 나라에 가져가져서 온 족속, 온 백성, 모든 언어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e) “Believed on in the world” “세상에 믿은바 되시고”

Wherever Jesus Christ is proclaimed, he is “believed on in the world”. The first to believe were the first eye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 even Thomas, in spite of all his initial doubts. As soon as the apostles began to preach the gospel to the nations, others began to believe as well. Nearly 3,000 people believed on the Day of Pentecost alone. As the first church in Jerusalem continued to preach the gospel, we are told that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Acts 2:47). It has been that way ever since. It is doubtful whether a single day has gone by since the day Jesus rose from the tomb without people coming to him in faith, giving their lives to him.

예수님이 선포되는 어디든지 그는 “믿은바 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은 부활의 첫번째 목격자들 – 심지어 처음에 의심했던 도마 -입니다.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다른 사람들 또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에만 거의 3000 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때, 우리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7)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일어나신 후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끌려 삶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던 날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The confession in 1 Timothy 3:16 makes a historical claim: “he was believed on in the world.” But this statement is for the present as well as the past because God is still making history. He will continue to bring men, women and children to salvation in Christ until history comes to an end. In fact, if you trust in Jesus Christ for your salvation, then this verse is about you as well. You are in the world. You believe on him. Therefore, your faith is one proof that Jesus is believed on in the world.

디모데전서 3:16 절의 고백은 역사적 선포입니다. “그가 온 세상에 믿은바 되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이 아닌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그는 역사가 종말에 이를때 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계속 부르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한 예수 안의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어지게 된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f) “Taken up in glory” “영광중에 올려지시고”

The only problem with taking Paul’s hymn or creed about the mystery of godliness in chronological order is the last phrase: he was “taken up in glory”. This seems to refer to the ascension. In fact, the same verb is used in the book of Acts, in 1:9, to describe the way Jesus ascended to heaven. The problem is that this seems to be out of sequence: Jesus was “taken up in glory” before he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or “believed on in the world”. One possible solution is that “taken up in glory” refers to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When Jesus returns to this earth he will come the way he left, trailing clouds of glory, to gather all his people to himself. The reason this is put in the past tense is that it is such a certainty. Jesus has promised to come again in power and glory, and he will undoubtedly do so.

바울의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된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그 찬송 혹은 그 고백서를 받아들이는데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는 “영광중에 올려지셨다”. 이는 승천을 말하는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승천하는 방식을 묘사하면서 사도행전 1:9 절에서 사용된 동사(taken up)와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란 이 구절이 시간적 연속선상의 이탈인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족속에 전파되고” 또는 “세상에 믿은바되기” 전에 “영광중에 올려지셨”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한 가능한 해답은 “영광중에 올려지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때는 그의 모든 백성을 모으기 위해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가 떠났던 것처럼 오실것입니다. 이 구절이 과거형으로 쓰여진 이유는 그것의 많은 확실성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권능과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The important thing, in any case, is that Jesus has become the glorified Christ. By virtue of his resurrection, Jesus is exalted and enthroned. He radiates the glory of God. What better way to end a hymn or creed than with the glorious praise of the glorious Christ.

어쨌든 중요한 점은 예수가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그는 높임을 받으시고 권위가 주어진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더욱 발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고백서나 찬송이 그 영광의 예수님을 향한 영광스런 찬양을 더 낫은 방법으로 마무리 할수 있겠습니까?

The truth that the church holds out to the world is the mystery of the incarnation (“appeared in a body”), resurrection (“vindicated by the Spirit”), presentation in his resurrection body (“seen by angels”), mission (“preached among the nations”), reception as Saviour and Lord (“believed on in the world”) and glorification (“taken up in glory”) of Jesus Christ. The only thing left to say about this mystery is that it is a mystery “of godliness”. In other words, this hymn or confession contains practical truth – it promotes the worship of God and encourages the living out of our faith.

교회가 세상에 붙들고 나가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인간되심 (“육신으로 나타나심”), 부활 (“영으로 오명이 풀림”), 부활한 몸으로의 출현 (“천사들에 의해 보여짐”), 사역 (“온 족속에 전파됨”),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 (“세상에 믿은바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돌려짐 (“영광중에 올려짐”) 의 신비입니다. 신비에 관한 유일하게 남은 할 말은 “하나님다움”의 신비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찬송 혹은 고백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실천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 이는 하나님의 예배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고양시킨다는 것입니다.

What does it mean, then, to live worthily of the mystery of godliness? Since Jesus “appeared in a body”, let us glorify him with our bodies. Let us use our hands to help, our lips to bless and build up, and our minds to serve. Since Jesus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let us pray that we ourselves will be vindicated on the day of judgment. Let us ask God to prove that we belong to him by giving us glorious resurrection bodies. And let us be thankful for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Ephesians 1:14). Since Jesus was “seen by messengers”, let us join the angels and the apostles in their worship around his throne. Since Jesus was and is “preached among the nations”, let us testify to his grace, declaring the gospel to everyone we know and sharing in the worldwide work of missions, so that all peoples might praise him. Since Jesus was and is “believed on in the world”, let us believe on him with all our hearts for salvation as well as for everything else we need. Last of all, since Jesus was “taken up in glory”, let us await his return with eager expectation, living holy and godly lives and longing for the day when we will see the great mystery for ourselves. Amen

그렇다면 그 하나님다움의 신비의 가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모습을 나타내셨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그분께 영광 돌립시다. 도울수 있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고 봉사하는 마음과 축복하고 서로를 복돋는 입술을 사용합시다. 또한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게

(1Timothy 3:14-16; Ephesians 2:19-22; Acts 1:1-11)

되셨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심판의 날에 의롭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런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보장하는 담보"(에베소서 1:14) 되신 성령이라는 선물에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이 "메신저들에게 보여지셨음"으로, 그의 보좌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사들과 사도들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온 족속에 전파되심"으로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영광중에 올려지셨음"으로,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신비를 보게 되는 그날을 갈망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